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정수열*

Racial/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Case Study of Asian Immigrants in Chicago Illinois PMSA

Su-Yeul Chung*

요약 : 거주지 분화(residential segregation)는 도시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거주지 분화의 원인에 대한 상이한 주장들을 살펴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현실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은 일찍이 논의가 활발했던 미국도시의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거주지 분화가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낮은 동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지리적 동화론(spatial assimilation), 주택금융시장의 인종차별에 기인한다는 층화론(place stratification), 그리고 거주지선택에 있어 타민족에 대한 선입관과 자기민족에 대한 선호에 기인한다는 재기되는 민족성론(resurgent ethnicity)을 살펴 보았다. 사례 연구로 시카고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의 거주패턴의 변화를 출신국가별로 지도로 그려 분석하였다. 1990년대를 통한 가장 큰 변화는 교외화와 재집중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민족성론을 그리고 부분적으로 마나 동화론을 뒷받침한다.

주요어 : 거주지 분화, 인종/민족성, 동화론, 층화론, 민족성론

Abstract : Residential segregation is oft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social problems that intensify urban inequality. This study reviews three different frameworks about the causes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tests their validity in the real world. The review focuses on racial/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U.S. cities since it has been blamed for persistent socio-economic gap among racial/ethnic groups. The three different segregation frameworks include 'spatial assimilation' that attributes segregation to low degree of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place stratification' to discriminatory practices in the housing and mortgage markets such as steering, blockbusting, and redlining, and 'resurgent ethnicity' to racial/ethnic preference in residential choice, particularly in-group attraction. As an effort to test their validity, the paper examined residential pattern changes of the four major Asian nationality groups through 1990s and found that their residences got decentralized but re-cluster in some selected suburbs. This supports 'resurgent ethnicity' largely and 'spatial assimilation' only partly.

Key Words : residential segregation, race/ethnicity, spatial assimilation, place stratification, resurgent ethnicity, Asian immigrants.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교 문리대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Western Illinois University), s-chung2@wiu.edu

1. 서론

도시에서 사람들은 도시라는 한 공간에 살면서도 역설적으로 따로 산다. 비슷한 소득수준, 직업, 연령, 출생지 또는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서로 이웃하여 살며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쉽게 이웃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말한 것들에 의해 거주지가 분화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집단거주지 형성과 거주지 분화는 해당 집단 구성원간 공유된 기호나 취향에 기반을 둔다 하여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으나 도시 불평등(urban inequity)을 야기하는 문제로 인식된다. 이는 한 집단과 그 구성원이 거주지 분화가 되어 있을 경우 도시 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과 직장 과 같은 도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주지 선택과 이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막는 어떠한 장벽도 불평등을 심화하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도시에 나타난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하고 시카고 지역의 아시아인 거주패턴 분석을 통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주된 이유로 거주지 분화가 지목되었고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아시아인과 히스패닉의 대거 이민으로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글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의 유입으로 민족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한국의 미래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지 분화의 사회성을 살펴보고 미국도시의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한다. 각 이론들이 소수민족의 거주패턴변화에 대해 상이한 예상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경험적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끝으로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각 이론들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한다.

2. 거주지 분화의 사회성

왜 거주지 분화가 발생하는 것일까? 소득수준, 직업, 연령대, 출생지역, 문화 등 그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 근원에는 ‘다르다는 느낌(feeling about difference)’에 있다. 자신과 같다고 느껴지는 타인은 이웃으로 받아들여지만 다르다고 느껴지는 타인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Sibley, 1995). 여기에 ‘내 실 곳은 나의 집뿐’이라는 식의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바람과 기대도 한몫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집단거주지 형성과 거주지 분화란 개인적 감정의 발로로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으로 비추어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다르다는 느낌 자체가 다분히 사회적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고르는 데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준 혹은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 게다가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 혹은 사회의 같고 다름의 기준을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 사용한다.

둘째,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다르다는 느낌’은 또한 일반화(generalization)와 낙인찍기(stigmatization)의 과정을 겪으면서 얻어진다. 타인에 대한 느낌은 그 사람의 외모, 말투, 혹은 행위에서 얻게 된다. 하지만 ‘다르다는 느낌’에 이르기 위해선 개인적 경험 혹은 사회적 통념에 기반을 두어 이리 이리한 사람은 이리 이리 하리라는 식의 일반화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락부락한 얼굴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죄자로 오인받기 쉽다. 이를 고정관념(stereotype)에 기반을 둔 낙인찍기라 일컬으며 다르다고 하는 판단에 이르는 전단계라 할 수 있다.

셋째, ‘다르다는 느낌’ 그 자체가 항상 타인을 배제(exclusion)하는 행위, 즉 격리(segregation)로 이어진 않는다¹⁾. 다르다는 느낌을 유발한 대상이 더럽다(dirty)고 판단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청결(purity)에 대한 집착이 종교적으로 그 대상을 배제하는 행위 즉 격리를 유발한다. 예로, 어린 시절부터 몸에 붙어 있는 때나 죽은 피부는 더럽다고 여기고 제거

되어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쳐진다.

요약하면 개인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에 비추어 타자를 일반화하고 낙인찍는데 자신과 다르다는 느낌에 이를 경우 청결의식의 발로로 그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론은 어떤 시기에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거주지 분화가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다음 절에서는 미국이란 특정 사회가 봉착한 거주지 분화의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3. 미국 도시의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이론들

미국도시에서 인종·민족별로 거주지 분화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상이한 주장들이 있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이민자 개인 혹은 집단이 주류 사회에 적응해 가는 와중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반면 미국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적 편견과 이를 활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부동산중개업자와 금융업자들의 차별적 관행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같은 민족 사람들에 대한 친밀성이 그 주된 원인이라 주장한다.²⁾

1) 동화론(spatial assimilation framework)

시카고 도시생태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리적 동화론은 거주지 분화가 소수민족집단이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Massey, 1985). 여기서 동화는 이주국에서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와 이주국 언어 습득도와 체류기간으로 측정될 수 있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Gordon, 1964). 따라서 동화론은 한 집단의 거주지분화의 정도는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 동화의 정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그 집단이 이주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 부를 쌓으면 다수민족집단과

혼주(residential integration)하게 될 것이라 본다(Massey and Denton, 1985).

지리적 동화론은 미국을 모든 인종과 민족의 용광로(melting pot)로 간주하는 사고와 맞닿아 있다. 최근 주거환경이 좋은 교외로 소수민족집단의 이주를 주류 사회로 동화의 지리적 결과물로 해석한다. 나아가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는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소득별 거주지 분화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Farley and Frey, 1994; Hwang and Murdock, 1998).

하지만 소수민족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필연적으로 다수민족집단과 혼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Darden and Kamel, 2000). 경험적 분석의 예로, Farley(1995)는 소득과 지가의 인종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영향을 1990년 세인트루이스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에서 동일한 소득수준의 흑인과 백인간 거주지 분화 정도가 두 집단 간 전반적인 분화 정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소수민족집단의 소득수준 향상이 혼주로 이어지지 않으며 인종성 혹은 민족성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리적 동화론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들은 인종·민족별로 편차를 보인다. 특히 일부 새로운 아시아와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현지 문화의 이해나 언어 습득이 없이 곧바로 교외에 정착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동화가 없이도 주거지 여과작용에서 상향 이동이 가능함을 의미한다(Allen and Turner, 1996a, 1996b; Alba et al., 1999; Logan et al., 2002). 또한 이는 '인종의 용광로'가 주장하는 모든 이민자는 종국적으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주류사회에 융합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거리가 있으며 전통적 지리적 동화론을 수정하게끔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분절된 동화론(segmented assimilation)'인데 한 소수민족이나 그 구성원의 동화에는 다음의 세 가지 다른 경로가 있다고 주장한다(Portes 1995; Portes and Rumbaut 1996; Zhou 1997). 첫째 경로는 주류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여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것이요, 둘째는 동화에 실패하여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셋째는 동일민족집단 사람들과 유대를 지속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가는 것이다(Wright and Ellis, 2000).

요약하면, 지리적 동화론은 거주지 분화의 원인을 소수민족집단 혹은 그 구성원 개인의 동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거주지 분화는 없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동화되기 전에 거주하는 임시 거처이자 주류사회로 적응의 발판이라고 보았다.

2) 층화론(place stratification framework)

Logan and Molotch(1987)가 주장한 층화론은 거주지 분화가 주택시장에서 인종·민족적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차별적 관행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즉, '조정(steering)', '지역 지위 강등(blockbusting)', '특정 경제지역 지정(redlining)' 과 같은 차별적 관행들은 인종·민족적 편견에 기반하여 주택시장을 분절시키고 해당 집단들을 특정장소에 한정되어 거주하게끔 한다. 결과적으로 차별받는 소수민족집단은 전체 시장에서 질이 낮은 주택들만을 소비하게 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아지더라도 다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보다 나은 주거지로 이동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층화론은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집단 혹은 그 구성원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동화론과 대비된다.

층화론을 뒷받침하는 경험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1975년 주택담보부대출 정보공개법(Home Mortgage Disclosure Act)이 공포된 이후이다. 이 법은 근린지역에 주택담보부대출의 수와 규모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감사가 뒤따랐는데 이를 통해 중개업자 자신이 가진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그 고객자신과 동일 인종·민족의 집단거주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조정이라 한다. Galster(1987, 1990a, 1990b, 1990c)는 감사자료 분석을 통해 소수민족집단이 주택을 구매 혹은 임대함에 있어 가격/용자, 매물정보획득, 자격심사에서 차별당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 차별 정도는 인종·민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흑인이 히스패닉보다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차별관행을 행하는 근원적 이유로 사회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혼

주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다. 주택판매자는 그러한 사회적 공감대에 순응하여 동일한 민족 구매자를 찾으려 하고, 소수민족 주택구매자는 그러한 공감대를 감히 거스르지 못하고 동일 민족 집단 거주지를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업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이 다른 소수민족을 동네에 끌어들이는 악소문일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보다 공격적인 차별 관행은 지역 지위 강등이다. 이는 중개업자가 다수민족 주택 소유자에게 소수민족들이 동네에 곧 이사 올 것이며 그러면 주택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시가보다 싸게 팔게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를 소수민족에게 비싼 값에 되팔으로써 이중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이는 사회에 만연한 인종적 편견을 이용한 중개업자의 이윤추구행위라 할 수 있으며 다민족근린에서 소수민족근린으로 급속한 전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혼주근린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조정과 지역 지위 강등이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차별 관행이라면 특정 경제지역 지정은 주택용자업자에 의한 것이다. 특정 경제지역 지정은 모기지 대부 여부가 지원자 개인의 신용이 아닌 구매하려는 주택이 속한 근린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가르킨다. 이는 특정 지역에 저투자를 낳아 급속한 주거환경의 쇠락을 초래한다. Dingemans(1979)는 1976년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를 사례로 주택담보부대출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한 결과 소수민족 집단거주지가 합당한 대출을 받고 있지 못하며 이는 대부업자들이 소수민족 집단거주지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최근 연구로 Myers와 Chan(1995)은 1990년 뉴저지를 사례로 인종별 주택용자를 연구하였는데 백인에 비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동일한 신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했다. 특히 흑인의 경우 더 높은 대출거부율을 보였다.

차별 관행과 거주지 분화는 근린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난다(Farley and Frey, 1994; Wilkes and Iceland, 2004). 제조업 중심의 북부 도시들은 미국 산업화 시대에 소수민족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였기에 새로운

소수민족에 보다 개방적이다. 그러한 소수민족의 예로 20세기 초 남부 출신 흑인과 최근 낮은 기술을 가진 아시아인과 히스패닉 이민자를 들 수 있다. 대학촌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기 체류함으로써 근린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 소수민족에게 개방적이다. 또한 공무원 주거지는 공정한 거주 기회를 제공되어야 한다는 법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소수민족에게 개방적이다. 반면 은퇴자 마을의 경우 소수민족 거주자가 적었는데 이는 흑인 고령층의 경우 경제적 부를 쌓지 못했거나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주류를 이루는 백인 은퇴자들은 인종차별이 사회규범으로 여겨지던 시기에 살아 단일민족 거주지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인다.

차별 관행이 초래하는 소수민족 집단거주의 공간 패턴은 Gotham(2002)의 연구에서 잘 들어난다. 켄사스 시에서는 1950년에서 1970년까지 흑인거주자가 급속하게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팽창하였다. Gotham은 그러한 급속한 팽창이 앞서 언급한 지역 지위 강등 때문이며 방향성은 자신의 자녀가 흑인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백인 학부모의 입장이 반영된 학군(school district)구획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층화론은 주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관행들이 혼주를 막고 거주지 분화를 지속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조정(steering)은 개별 거주지에 인종적 꼬리표를 붙여 주택시장을 분절화시키고 소수민족집단을 특정 거주지에 한정시킨다. 반면 지역 지위 강등(blockbusting)은 소수민족집단이 혼주를 위해 이주하더라도 기존 다수민족집단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감으로써 여전히 서로 분화되어 살게 한다. 게다가 특정 경제지역 지정(redlining)은 소수민족거주지 주민들이 적절한 주택담보부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쇠락하게 한다. 이렇듯 층화론은 혼주를 가로막고 거주지 분화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적 구조적 요인을 강조한다. 특히 동화론과 대별되어 층화론은 소수민족집단이 사회경제적 자원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 민족성론(resurgent ethnicity framework)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운동(civil right movement)의 성과로 예전에 비해 가시적으로 들어나는 차별은 줄고 소수민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혼주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듯 향상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왜 거주지 분화는 여전히 유지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것이 제기되는 '민족성론'으로 거주지 분화의 주된 원인이 거주지 선택에 있어 인종·민족적 선호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거주지 선택에 있어 자기민족에 매력을 느끼는 반면 특정 타민족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들이 결합되어 자신의 거주지의 인종·민족 구성에 대한 특별한 선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로, 1976년 디트로이트 지역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인은 백인과 흑인의 비율이 8대 2를 반면 흑인은 5대 5를 선호하는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한 지역의 흑인의 비중이 20%가 넘어서면 새로운 백인이 유입되지 않음은 물론 기존 백인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반면 흑인은 계속 유입되어 종국에는 흑인지역으로 된다(Massey and Denton, 1993). Krysan and Farley(2002)는 흑인이 199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5대 5 백인과 흑인의 비율에 대한 강호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인종·민족 구성에 대한 상이한 선호는 다민족 혼합 거주지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거주지 선택에 있어 인종·민족적 선호는 아시아인과 히스패닉에게도 발견된다. Logan *et al.* (2002)은 1990년대를 거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아시아인과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도심에 위치한 집단거주지를 거치지 않고 교외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집단거주지를 형성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교외 집단거주지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강요된 전통적 개념의 이민자 집단거주지(immigrant enclave)라기 보다는 동일민족 선호에 따른 지역공동체(ethnic community)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민족성론은 혼주가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과 주택시장에서 차별적 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종·민족적 선호가 거주지

분화를 존속시킨다고 주장한다.

민족성론이 함의하는 공간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새로운 이민자로 도심의 전통적 집단거주지가 포화상태가 되어 지리적으로 팽창하는 유출효과(spillover effect)가 있다. 그 예로, 1990년 로스앤젤레스의 멕시코인들의 집단거주지를 들 수 있다(Allen and Turner, 1996a, 153). 둘째, 새로운 이민자가 친지나 친구 곁으로 정착하는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이 있으며, 셋째, 새로운 이민자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high socio-economic status) 덕택에 도심의 전통적인 집단거주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외에 정착할 수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일본기업에 근무하는 일본인 기술자들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중국인과 한국인이 그런 사례이다(Allen and Turner, 1996a, 152; Allen and Turner, 1996b).

이상의 과정은 두 종류의 양극화된 집단거주지가 한 도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도심에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를 흡수하고 팽창하는 전통적 의미의 쇠락한 집단거주지(enclave)와 반면 교외에는 이민 후 사회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과 본국에서부터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새로운 이민자가 거주하는 신집단거주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지리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된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는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Allen and Turner, 1996a, 152).

앞서 살펴본 미국 도시의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을 계급(class)과 문화(culture) 그리고 구조(structure)와 행위주체(agent)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화론의 경우 계급과 문화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로, 현지 언어 습득과 같은 문화적 적응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용이하게 한다고 본다. 또한 동화론의 다수민족과 혼합 거주는 소수민족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조보다는 행위주체에 방점을 둔다. 반면 층화론은 계급보다는 문화 그리고 행위주체보다는 구조에 주안점을 준다. 인종·민족적 편견에 기반한 주택금융시장에서 차별적 관행이 거주지 분화를 유지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민족성론은 계급과 문화 양자 모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은 소수민

족에게 보다 나은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보며 거주지 선택에 있어 자기민족 선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구조적 제약에 대한 고려는 적으며 소수민족의 선택 즉 주체를 강조한다.

4. 연구방법 및 사례지역 개관

본 연구는 상기한 세 가지 이론이 함의하는 소수민족집단의 도시 내 거주지 패턴이 다름을 주목하고 미국 도시를 사례로 각 이론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본다. 사례로 미국 시카고의 아시아인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로 이민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특히 시카고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첫발을 내딛었던 오랜 관문도시(gateway city)로 도시생태학(urban ecology)의 모델이 되었던 도시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인은 그 이민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최근 상황을 반영하며 언어장벽과 같은 일반적인 이민자의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하지만 아시아인을 동질성을 지닌 하나의 집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출신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³⁾

아시아인의 거주지 분화와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출신국가별로 1990년과 2000년 거주지를 지도를 그려 분석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앞 절에서 살펴본 세 이론들에서 도출된 다음의 가설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동화론이 옳다면 소수민족집단의 거주지가 점차 도시 전역으로 확장되고 새로운 집단거주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전통적인 집단거주지는 새로운 이민자의 급속한 증가가 있을 경우 지리적으로 팽창할 수 있으나 단지 문화적 그리고 구조적 동화가 낮은 이들을 위한 임시거처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층화론이 현실에 부합한다면 소수민족집단의 거주지는 도시 일부, 특히 낙후된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집단 거주지가 생겨난다면 기존 집단 거주지와 인접하여 나타날 것이다. 끝으로 민족성론이 옳다면 소수민족은 낙후된 도심인근의 전통적 집단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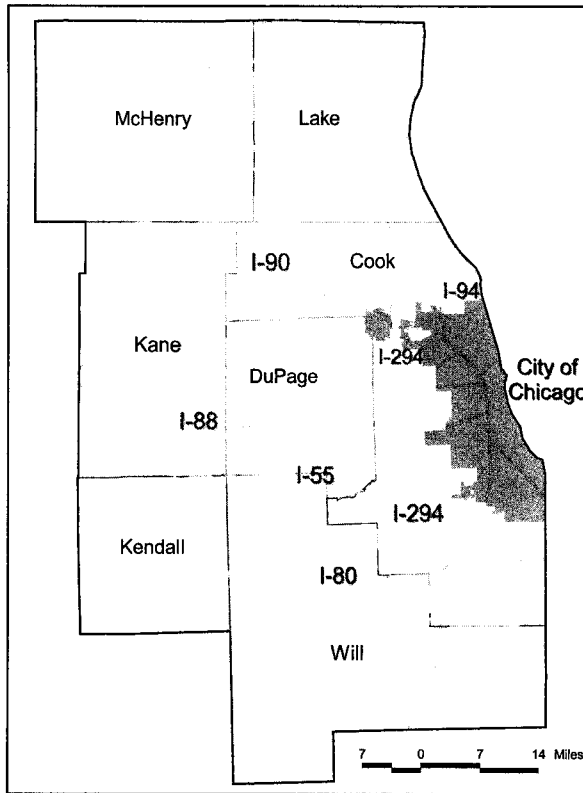


그림 1. 시카고 메트로 카운티와 주요도로

주지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외에 새로운 집단거주지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누어져 거주할 것이다. 또한 이 양자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도심 교통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사례지역인 시카고 메트로폴리탄의 지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일리노이 주 북동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 미시간 호수와 접하고 있고 일곱 개 카운티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쿡(Cook)카운티 안에 있는 시카고시(City of Chicago)가 메트로폴리탄의 중심도시이며, 그와 지리적으로 연속하여 교외가 서쪽으로 펼쳐져 있다. 교외지역은 도심에서 방사선으로 나있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94번은 내부 순환도로 그리고 294번은 외부 순환도로라 할 수 있다. 종종 미국 메트로폴리탄들은 도심(urban), 내부교외(inner suburbs), 그리고 외부교외(outer suburbs)의 동심원으로 나누는데 시카고 메트로의 경우 시카고 시내의

94번 고속도로와 미시간호수 사이를 도심이라 할 수 있고 94번과 294번 도로 사이를 내부교외 그리고 294번 외곽을 외부교외라 하겠다.

2000년 시카고의 인종 구성은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아인 순이다(표 1).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가장 큰 변화는 히스패닉의 급속한 증가로 흑인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실제 미국 전체에서 히스패닉은 2000년에 흑인을 제치고 가장 규모가 큰 소수민족집단이 되었다. 연구지역에서 흑인은 그 비중은 줄었으나 그 절대적 수는 증가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한 아시아인의 비중은 5% 미만이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종적 다수 집단인 백인은 절대적 수에서도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감소가 있었다기 보다는 2000년 센서스가 사상 처음으로 복수응답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즉 백인과 다른 인종·민족성을 함께 가진 응답자가

표 1. 시카고 인종 민족별 인적 구성

	1990	2000
백인	4,795,120 (65.7%)	4,687,259 (57.5%)
흑인	1,406,648 (19.3%)	1,537,534 (18.9%)
히스패닉	838,710 (11.5%)	1,490,202 (18.3%)
아시아인	242,642 (3.3%)	378,170 (4.6%)
기타*	17,469 (0.2%)	53,099 (0.7%)
합계	7,300,589 (100.0%)	8,146,264 (100.0%)

* 아메리칸 인디언 포함, 2000년 자료는 복수응답자 포함.
출처: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and 2000.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만을 선택하여 밝힐 것을 요구한 1990년 센서스에서는 사회경제적 주류인 백인의 일원이라 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 센서스에서는 자신의 복수인종성을 밝힐 수 있었고 이들은 단수인종과 병립하는 독립된 범주로 분류되었다. 1990년대 시카고의 변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라 할 수 있다.

표 2는 이들 4대 인종·민족간 거주지 분화의 정도를 센서스 트랙트를 단위로 계산된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Duncan and Duncan(1955)에 의해 제안된 상이지수는 두 집단간의 거주지 분화를 균등(evenness)의 관점에서 측정한다.⁴⁾ 지수는 0에서 100의 값을 가지며 두 집단이 도시 전체 비율대로 모든 주거지에 살도록 개별 집단이 현 주거지를 벗어나 다른 주거지로 이동하여야 하는 그 집단 구성원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따라서 그 값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화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로, 2000년 백인 대비 흑인의 상이지수는 80.8인데 이는 백인 혹은 흑인의 80.8%가 다른 주거지를 이사를 가야 두 집단이 도시 내 모든 주거지에 전체 비율에 맞게 균등하게 분포하게 되어 거주지 분화를 없앨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인종/민족간 상이지수

	1990	2000
백인 대 흑인	84.4	80.8
백인 대 히스패닉	62.8	62.1
백인 대 아시아인	45.6	44.4
흑인 대 히스패닉	80.6	77.4
흑인 대 아시아인	84.6	81.6
히스패닉 대 아시아인	62.1	63.4

2000년 백인 대비 거주지 분화의 정도는 흑인(80.8), 히스패닉(62.1), 아시아인(4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흑인의 다른 소수민족집단인 히스패닉(77.4)과 아시아인(81.6)과도 높은 거주지 분화를 보였다. 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분화 패턴은 1990년대를 거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모든 인종·민족의 조합에서 상이지수 값은 아주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십년간 인종·민족 다양성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혼주(residential intermixing)의 증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한 도시에 한 개 값만을 제공하는 상이지수는 도시 간 비교를 하는데 유용할지 모르나 도시 내 거주지 분화를 측정하지 못한다(Brown and Chung, 2006). 또한 상이지수는 다른 공간적 분포 패턴에 대해 동일한 값을 산출하여 물공간적(aspacial)이다(Wong, 1993). 이에 도시 내 거주지 분화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아시아인의 거주지를 지도로 그려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다.

5. 시카고 거주 아시아인의 출신국가별 거주지패턴

아시아인을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많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인은 파키스탄에서 일본에 이르는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인을 출신국가별로 나누

표 3. 시카고 거주 아시아인 출신국가별 구성

	1990	2000
인도인	58,153 (24.0%)	113,812 (30.1%)
필리핀인	60,427 (24.9%)	80,891 (21.4%)
중국인	43,119 (17.8%)	64,745 (17.1%)
한국인	36,275 (15.0%)	45,122 (11.9%)
기타	44,668 (18.3%)	73,600 (19.5%)
아시아인	242,642 (100.0%)	378,170 (100.0%)

출처: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and 2000.

고 연구지역인 시카고에서 인구수가 많은 민족들을 선택하였다(표 3). 그 결과 인도인, 필리핀인,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이 선택되었는데 이들을 합치면 시카고 거주 아시아인 전체의 80%를 상회한다.

1990년대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도인의 급성장이다. 인도인은 수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에는 필리핀인을 제치고 가장 많은 아시아 민족이 되었다. 필리핀인, 중국인, 한국인은 아시아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으나 그 수에 있어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은 이들 네 집단의 거주지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들 지도는 등고선도(contour map)와 유사한데 해당 연도 센서스자료에서 각 집단의 인구수를 센서스 트랙트(census tract)별로 산출하고 동일한 값을 가진 점들을 이은 등치선(isoline)을 그렸다. 값의 크고 작음을 보이기 위해 50명씩 증가할 때마다 보다 짙은 색의 선으로 표시하였으며 모든 작업은 ArcMap의 Spatial Analyst 모듈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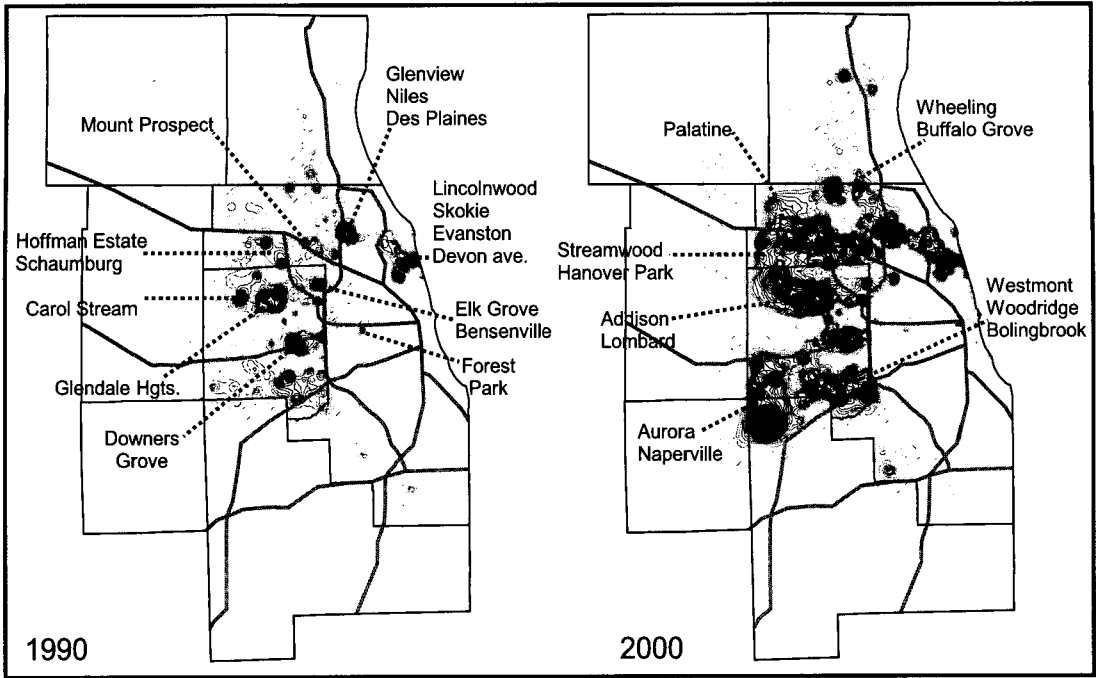
먼저 인도인을 살펴보면 1990년 주거지는 외부순환도로 I-294 밖인 외부교외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그림 2a). 인도인은 특히 서부와 북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반면 인도인에게도 중국인의 차이나타운과 같은 민족적 경관이 뚜렷한 거리가 있는데 Devon Avenue

로 도심 북단에 위치해 있다. Devon Avenue는 이민 초기에 시카고에 발을 내딛는 발판이 되었고 지난 십년간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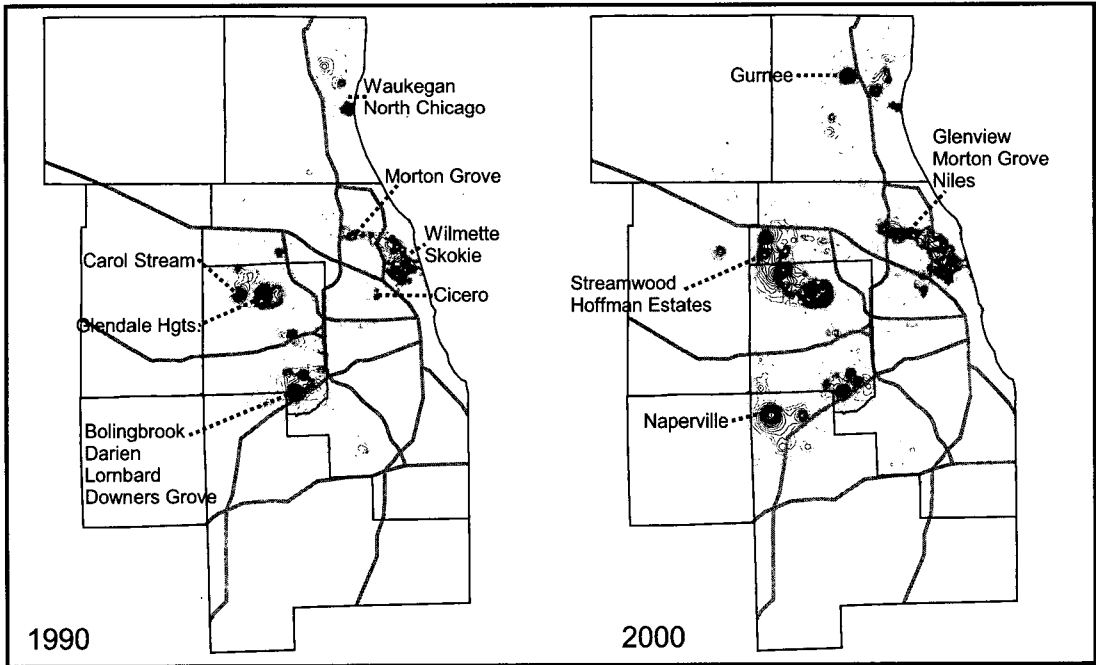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1990년대 가장 큰 변화는 인도인의 거주지가 도시 외곽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인도인은 1990년대에 100%이상 증가하였는데, 새로운 유입된 인도인은 교외에 바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적으로 교외에 거주하는 인도인이 41,660명(71.8%)에서 85,921명(75.5%)으로 급증하였다. 시카고 외부 교외의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컴퓨터 기술을 가진 인도인들과 그들 가족의 대거 유입이 한몫하였다(Park et al., 2005).

필리핀인은 다른 아시아인에 비해 미국이민의 역사가 길다. 이는 미서전쟁(Spanish-American War) 이후 1898년부터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정부장학금에 힘입어 고등교육을 받으러 미국에 와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민은 여타 아시아인과 마찬가지로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이다. 인도인에 이어 두번째로 그 수가 많은 필리핀인의 집단거주지는 도심 북부(Skokie), 서부 교외(Glendale Heights), 남서부 교외(Bolingbrook), 그리고 북부 교외지역(Waukegan)이다(그림 2b). 특히 북부 교외지역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의료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이민을 장려해 왔는데 이 집단거주지는 영어구사가 자유롭다는 이점을 갖는 필리핀 의료인들이 시카고에 유입되어 형성되었다. 이들 모두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지리적인 팽창을 이루었다. 또한 교외화가 진행되어 교외거주자의 비중이 54.6%에서 60.2%로 증가하였다.

1870년대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건설 노동자로 미국 사회에 일찍이 발을 내딛은 중국인은 1882년 Chinese Exclusion Law와 같은 적대적 정책과 극심한 남초 현상으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중국공산화로 북경어를 쓰는 다수의 정치적 망명자가 시카고로 유입되었고 이들은 기존 광둥 출신들이 자리 잡은 차이나타운 밖에 정착하였다. 또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걸쳐 대만과 홍콩 출신 그리고 1970년대 베트남 출신 중국인의 유입이 이어졌다. 중국인의 거주지는 아시아인 중 가장 도심에 집중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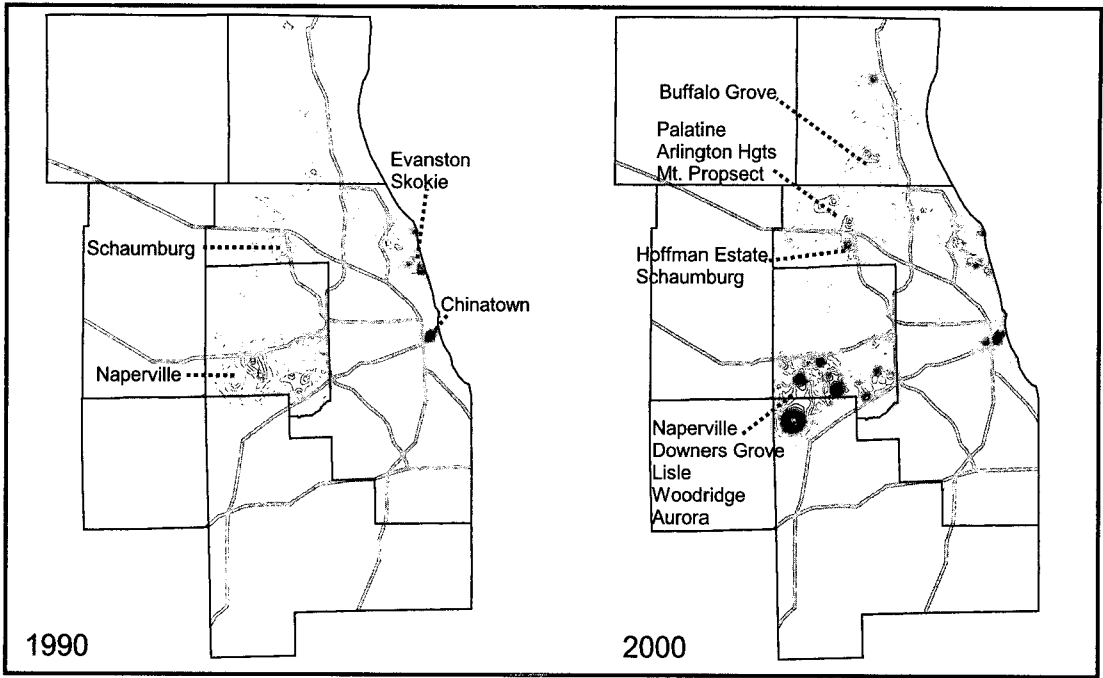
(a) 인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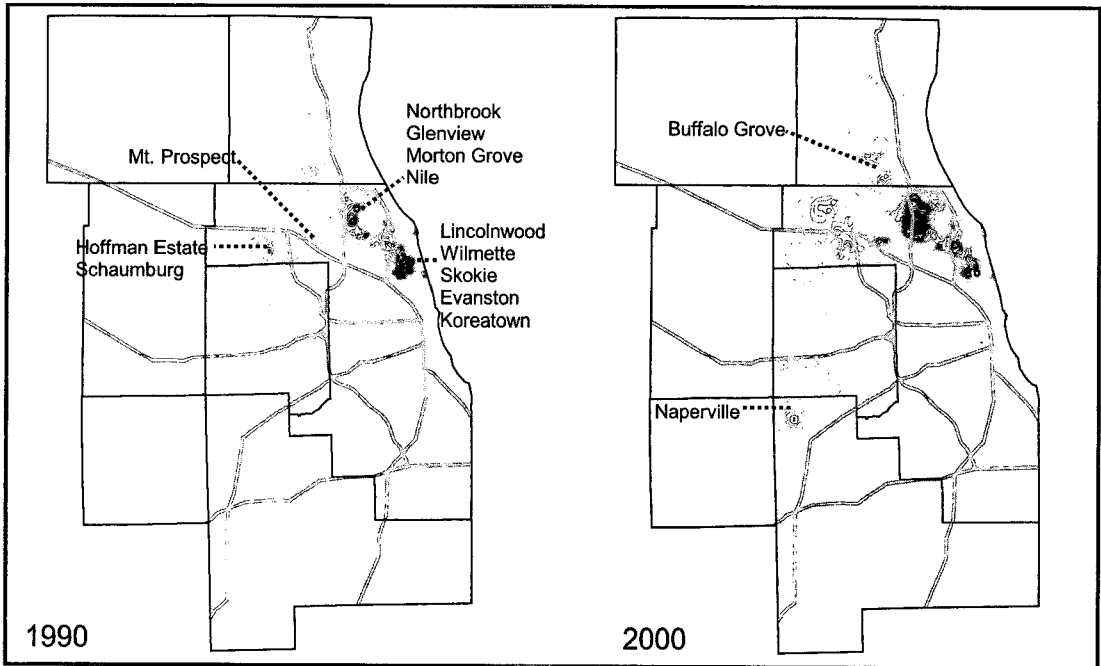
(b) 필리핀인

그림 2. 시카고 아시아인의 출신국가별 거주지 패턴 변화

출처: Park et al., 2006, 219, 221쪽 재구성.



(c) 중국인



(d) 한국인

그림 2. 시카고 아시아인의 출신국가별 거주지 패턴 변화

출처: Park et al., 2006, 223, 225쪽 재구성.

있다(그림 2c). 도심거주자 비중이 1990년에 51.7%였던 것이 2000년에는 증가하여 53.1%가 되었는데 다른 아시아인과 대별된다. 이런 도심화 경향의 중심에는 오래 역사를 가진 차이나타운이 있다. 도심 남단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은 1910년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뉴차이나타운이 도심 북단에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심화 경향 속에서도 중국인들의 교외화가 나타나고 있다. 남서부 외곽에 있는 Naperville과 그 인근도시들에서 중국인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도심 차이나타운과 55번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다른 교외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흥미롭다.

끝으로 한국인은 다른 아시아인과 같이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197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70년에 2,000 여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0년에는 21,057명으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미국인과 결혼한 여성, 그리고 독일에서 간호사와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힘입었다. 특히 한국인은 가발 판매 자영업을 통해 시카고 지역경제에 깊숙이 연관되었는데 이들 가게들은 주된 고객층인 흑인이 집단 거주하는 도심 남부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한국인은 거주지는 도심 북단 혹은 북서부 교외에 편중되어 나타나 뚜렷한 직주분화가 이루어져 있다(그림 2d). 중국인의 차이나타운에 비견될 만한 코리아타운 또한 도심 북단의 Lawrence Avenue에 있다. 1990년대를 걸치면서 한국인 또한 상당한 교외화가 진행되었다. 사실 한국인은 연구 대상 아시아인 중 가장 교외화가 된 이민자집단이다. 한국인 도심 거주자의 비중은 2000년에 28.5%로 1990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교외화의 이유로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로 좋은 학교에 대한 강한 선호를 꼽는다(Huh, 1998). 이에 따라 도심 북단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은 쇠퇴의 일로에 있다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카고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의 출신국가별 거주패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균등 분포이다.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인도인조차도 내부교외와 도심남부에서 아주 극소수만이 거주하고 있다. 둘째, 이민초기 집단거주지가 도심상업지구 외곽에 잔존하고 있으면 지리적으로 팽창하기도 한다. 인

도인의 경우 Devon Avenue에, 필리핀인은 Skokie에, 한국인은 Lawrence Avenue에, 그리고 중국인은 차이나타운에 자신의 민족적 경관이 뚜렷한 거리를 갖고 있다. 셋째, 상당히 교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교외 거주자가 도심 거주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에 통해 그 격차가 더 커졌다. 넷째, 모든 집단에서 새로운 집단거주지가 교외에서 발견되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1990년대를 통한 거주패턴의 변화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외화와 재집중’이라 할 수 있다.

6. 이론에 대한 평가 및 결론

1990년대 시카고 거주 아시아인의 거주지 패턴 변화를 통해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동화론은 거주지 분화가 소수민족의 낮은 문화적 구조적 동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민족집단의 거주지가 점차 도시 전역으로 확장되고 새로운 집단거주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카고 아시아인의 경우 1990년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거주지가 교외로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집단거주지 또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화론은 부분적으로만 뒷받침된다.

반면 층화론은 주택·금융시장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그들을 낙후된 도시 일부에 집단거주하게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시카고 아시아인의 거주지는 지난 십년간 도시 교외로 상당히 넓혀졌다. 사례분석은 층화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끝으로, 민족성론에 따르면 거주지 분화는 거주지 선택에 있어 자기민족에 대한 선호에 기인하여 소수민족은 낙후된 도심인근의 전통적 집단거주지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외에 새로운 집단거주지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따라 나누어져 거주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시카고 아시아인의 거주지패턴에 가장 가깝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두 집단거주지가 교통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도 보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 민족성론이 1990년대 시카고 아시아인의 거주패턴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다.

본 연구는 인종·민족간 사회적 관계가 공간상에 표출된다고 가정하고 지리적 패턴 분석에만 치중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거주지 분화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적 함의를 도출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분석을 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 또한 거주지 분화라는 문제가 지리적 현상이고 그 심각성이 지리적인 배열에 따라 높고 낮음이 결정되기에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거주지 분화 이론의 평가는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며 이를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한국 지리학계에서도 그동안 거주지 분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최은영(2003)은 상이 지수와 같은 거주지 분화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수들의 물공간성(aspaciality)을 지적하고 이상일(2007, 2008)은 공간통계학을 활용한 국지적 지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수 관련 연구들은 거주지분화가 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 가격차별화와 거주지분화를 통하여 부모의 학력자본이 자녀세대에서 재생산된다는 최은영(2004a, 2004b)의 연구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한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에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집단 거주지역이 등장하고 있다. 예로 안산시 원곡동을 들 수 있다(박배균·정건화, 2004). 이러한 집단거주지는 내국인의 낮은 출산율과 특정 업종 기피가 있는 한 유지될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도시의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를 살펴본 본 연구는 이들 집단거주지의 미래상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註

- 1) 여기서 격리는 거주를 달리 함은 물론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을 다른 곳에서 함을 포괄한다.
- 2) 최근 Brown and Chung(2008)은 시장에 의해 추동된 민족 다원론(Market-led pluralism)을 새롭게 제기하였으나 이론적 검증을 거치고 있고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3) Chung and Brown (2007)은 거주지 분화 이론들을 오하이오주 콜롬버스 메트로폴리탄을 사례로 검증한바 있다. 하지만 아시아인을 백인, 흑인, 히스패닉과 대비되는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는 아시아인을 출신국가별로 나눠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다 발전시킨 것이다.
- 4)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D = \frac{1}{2} \sum_i^n \left| \frac{a_i}{A} - \frac{b_i}{B} \right|$$

a_i 과 b_i 는 각각 개별지역 i 에 거주하는 집단 A와 B의 구성원 수이며 A와 B는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두 집단의 총수이다.

文獻

- 박배균·정건화, 2004, “세계화와 ‘있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 이상일, 2007,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I): 공간 분리성 측도의 개발,” 대한지리학회지, 42(4), 616-631.
- 이상일, 2008, “거주지 분화에 대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II): 국지적 공간 분리성 측도를 이용한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3(1), 134-153.
- 최은영, 2003, “거주지 분리 연구의 비공간적 전통을 넘어: 공간지수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7, 23-35.
- 최은영, 2004a, “서울의 학력집단별 거주지 분리와 아파트 가격의 차별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592-605.
- 최은영, 2004b, “학력자본 재생산의 차별화와 빗장도시의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3), 374-390.
- Alba, R. D., Logan, J. R., Stults, B. J., Marzan, G., and Zhang, W., 1999, Immigrant groups in the suburbs: A reexamination of suburbanization and spatial assimi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3), 446-460.
- Allen, J. P. and Turner, E., 1996a, Spatial patterns of immigrant assimilation, *Professional Geographer*, 48(2), 140-155.
- Allen, J. P. and Turner E., 1996b, Ethnic diversity and segregation in the new Log Angeles, in Roseman, C., Laux, H.D., and Thine, G., (eds.), *EthniCity: Geographic Perspectives on Ethnic*

- Change in Modern Cities*, Rowan and Littlefield, 1-31, London.
- Brown, L. A. and Chung, S-Y, 2006, Spatial segregation, segregation indices, and the geographic perspective, *Population, Space, and Place (form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12(2), 125-143.
- Brown, L. A. and Chung, S-Y, 2008, Market-led pluralism: Re-thinking our understanding of racial/ethnic spatial patterning in US cit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8(1), 180-212.
- Chung, S-Y and Brown, L. A., 2007, Racial/ethnic residential sorting in spatial context: Testing the explanatory frameworks, *Urban Geography*, 28(4), 312-339.
- Darden J. T. and Kamel, S. M., 2000, Black residential segregation in suburban Detroit: Empirical testing of the ecological theory,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y*, 27(3), 103-123.
- Dingemans, D., 1979, Redlining and mortgage lending in Sacramento,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9(2), 225-239.
- Duncan, D. and Duncan, B., 1955,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segregation index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 210-217.
- Farley, J. E., 1995, Race Still Matters: The minimal role of income and housing cost as causes of housing segregation in St. Louis, 1990, *Urban Affairs Review*, 31(2), 244-254.
- Farley, R. and Frey, W. H., 1994, Changes in the segregation of Whites from Blacks during the 1980s: Small steps toward a more integrated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1), 23-45.
- Galster, G. C., 1987, The ecology of racial discrimination in housing: An exploratory model, *Urban Affairs Quarterly*, 23(1), 84-107.
- Galster, G. C., 1990a, Racial discrimination in housing markets during the 1980s: A review of the audit evidence,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9(3), 165-75.
- Galster, G. C., 1990b, Racial steering by real estate agents: Mechanisms and motives,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y*, 19(1), 39-63.
- Galster, G. C., 1990c, Racial steering in urban housing markets: A review of the audit evidence, *Review of Black Political Economy*, 18(3), 105-129.
- Gordon, M.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Gotham, K. F., 2002, Beyond invasion and succession: School segregation, real estate blockbusting,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neighborhood racial transition, *City and Community*, 1(1), 83-111.
- Huh, W. M., 1998, *The Korean Americans*, Greenwood Press, Westport, Conn.
- Hwang, S-S. and Murdock, S. H., 1998, Racial attraction or racial avoidance in american suburbs?, *Social Forces*, 77(2), 541-566.
- Krysan, M. and Farley, R., 2002, The residential preferences of Blacks: Do they explain persistent segregation?, *Social Forces*, 80(3), 937-979.
- Logan, J. R., Alba, R. D., and Zhang, W. Q.,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99-322.
- Logan, J. R. and Molotch, H. L., 1987, *Urban Fortun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Massey, D. S., 1985,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and empirical review,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9(3), 315-350.
- Massey, D. S. and Denton, N. A., 1985, Spatial assimilation as a socioeconomic outc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1), 94-106.
- Massey, D. S. and Denton, N. A.,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yers, S. L. and Chan, T., 1995, Racial discrimination in housing markets: Accounting for credit risk, *Social Science Quarterly*, 76(3), 543-561.

- Park, S., Chung, S-Y., and Choi, J., 2006, Asians in Chicago, in Greene, R.P., Bouman, M.J., and Grammenos, D. (eds.) *Chicago's Geographies: Metropolis for the 21st Century*,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Washington, D.C., Chapter 16, 217-231.
- Portes, A., 1995, Children of immigrants: segmented assimilation and its determinants, in Portes, A., (ed.),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Russell Sage Foundation, 248-280, New York.
- Portes, A. and Rumbaut R., 199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2nd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Sibley, D., 1995, *Geograph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Wilkes, R. and Iceland, J., 2004, Hypersegreg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mography*, 41(1), 23-36.
- Wong, D. W. S., 1993, Spatial indexes of segregation, *Urban Studies*, 30(3), 559-572.
- Wright, R. and Ellis, M., 2000, Race, region, and the territorial politics of immigration in the US,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6(3), 197-211.
- Zhou, M., 1997, Segmented assimilation: issues,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975-1008.
- 교신: 정수열, Department of Geography, Western Illinois University, 313 Tillman Hall, 1 University Circle, Macomb, IL 61455-1390, U.S.A (이메일: s-chung2@wiu.edu, 전화: +1-309-298-2956)
- Correspondence: Su-Yeul Chung, Department of Geography, Western Illinois University, 313 Tillman Hall, 1 University Circle, Macomb, IL 61455-1390, U.S.A. (e-mail: s-chung2@wiu.edu, phone: +1-309-298-2956)

최초투고일 08. 07. 07

최종접수일 08. 09. 08